



계란산업 발전과 근본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회 발족

계란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8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 회의실에서 ‘계란산업발전대책연구회(회장 오정길, 이하 계란연구회)’ 임시총회를 열었다.

‘계란연구회’는 계란산업 현황에 관한 자료의 체계화 등 기초작업을 토대로 종계, 생산, 유통, 가공·소비, 수출입 등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협의해 계란산업의 국내외 동향,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할 목적으로 발족됐다.

계란연구회는 오정길 회장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을 위해 생산, 유통, 정책 3개 분과를 운영키로 했다. 생산분과위원장에 김인배 양계협회 포천채란지부장, 유통분과위원장에 이상호 산란계관리위원장, 정책분과위원회에 천강균 양계협회 부회장을 각각 추대했고, 감사에는 김현성 양계협회 이사과 배영수 계란유통

협회 총무위원장이 선임됐다.

이날 첫 임시총회를 통해 생산분과위는 △공동자원화 활용방법 △키티제 문제 △농장단위의 계란보관창고 지원 △사료구매자금 금액 하향 △계란생산 실명제 △무허가 농장의 양성화가 필요로 할 것임을 토론했다. 유통분과위는 △상인의 법적 제도화 △콜드체인 매뉴얼화 △냉장차의 정부 지원 △계란용기에 대한 제도화 △난좌 재사용에 대한 신고사항 등 법적제도 필요에 대해 의견을 집약했다. 정책분과는 생산과 유통분과위에서 나온 내용을 통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오정길 회장은 “계란연구회는 앞으로 매분기 별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며,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계란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적 해결 도출과 제도화 방안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계**



육계산업 전문가들, 산업발전대책에 머리를 맞대다

계 육산업발전대책연구회(회장 서옥석, 이하 계육연구회)는 지난 8월 28일 천안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진 첫 회의 자리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육계 품질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계육연구회는 국내 육계산업과 관련하여 행정, 정책, 연구, 생산, 가공, 유통 등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이 모인 연구모임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방침에 따라 구성되었다.

이날 서옥석 회장은 “자발적인 모임체는 아니지만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산업의 ‘정답’을 도출하는 활동에 다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계육연구회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고 분과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했다. 정책위원장은 대한양계협회 이흥재 부회장, 사육분과위원장에 마니커 최충집 상무, 유통분과위원장에 대한양계협회 최길영 화성육계지부장, 수출분과위원장에 토종닭협회 문

정진 상임부회장, 종계부화분과위원장에 한국원종 고도육 대표, 도계·가공분과위원장에 유코브릿지 박준완 대표가 각각 추대됐다.

이날 연구회는 육계생산이력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최충집 사육분과위원장은 “AI 등의 문제가 터진 뒤에 역학조사를 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너무 대응이 늦다”고 지적하고, 포괄적인 이력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길영 유통분과위원장은 종계·병아리 이력제에 백신 여부와 생산주령 등을 함께 표기토록 한다면, 병아리 품질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원들은 양계협회가 시행하는 종계DB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계육연구회는 오는 10월 9일 충남 성환 소재 축산과학원 기금과 회의실에서 2차 전체회의를 갖기로 했다. **양계**